

전시회는 환경 친화적인 제품과 경영을 강조해 온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에 이르는 친환경 우수 기업들이 참가,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학계와 연구소에서 각종 강연과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 다양한 이벤트를 열었다.

2005 국제친환경엑스포는 기존에 사후처리(수처리, 대기오염방지, 폐기물처리 등)의 환경 박람회에서 사전오염예방 또는 친환경 생산시스템, 생활제품이 대거 선보였다. 특히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기업들도 공정개선은 물론, 환경 신기술 개발 및 그린마케팅 등의 환경 경영혁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반영, 웰빙친환경 제품이 출품됐다.

한편 환경관리 국제표준인 ISO 14000을 바탕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어린이가 중심이 되

어 에너지 절약 등 환경관리의 중요성과 방법을 배우는 에코키즈페스티벌과 한·중·일 제지분야 국제 심포지움이 부대행사로 열려 많은 관심을 받았다.

천안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선별·저장·포장·유통 체계적 관리

천안시가 품목 특성에 맞는 산지유통시설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산지유통센터시설'이 광덕면 지장리에 건립됐다.

시는 지난 달 11일 지역 주민을 비롯, 농산물



▲ 서울시 2005 국제친환경엑스포 개최

정책기관

가공 및 유통업체 관계자 등 2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지유통센터시설'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산지 농산물 유통에 나섰다.

사업비 4억여원을 들여 건립된 산지유통센터는 1천8백35평의 터에 3백1평 규모의 저온저장고와 예냉시설 등이 갖춰져 앞으로 자체 생산한 버섯과 인근 지역의 생산품을 산지경매 방식으로 매입하고 선별·저장·포장·유통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버섯류를 생산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그린농산이 관리하게 된다.

산업자원부

대한민국 2005 e-비즈니스 주간개막
e-Biz Expo 열려

산업자원부(장관 이회범)는 지난 달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을 「2005 e-비즈니스주간」으로 선포, 11월 10일 '제9회 대한민국 e비즈니스 대상 시상식'을 시작으로 'e비즈 및 e러닝 엑스포 2005 전시회'를 비롯해 한·중·일 e비즈 컨퍼런스 및 각종 세미나·포럼 등 총 19개 행사를 동시에 개최했다.

첫 행사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e비즈니스 대상 시상식에서는 이회범 산업자원부장관과 행사관련 주요인사 4백여명이 참석, 성대히 거행됐다.

이회범 장관은 이날 수상자와 참석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우리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려면 연구·개발, 생산, 판매 등

기업 활동의 전과정을 'e-비즈니스화' 함으로써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국제적인 'e-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도 'e-비즈니스'를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가치 창출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이를 R&D, 부품조달, 생산 및 거래 등 산업 활동의 전반에 확산시켜 나가도록 다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시상식 기업체 부문에서 최고의 영예인 대한민국 e비즈니스 대상(대통령상)은 온라인 국제물류시스템 개발 등으로 국제선 화물운송 실적 세계 1위인 (주)대한항공(대표 조양호,이종희)이,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은 인터넷, 모바일, TV뱅킹 등 디지털 은행으로 자부하는 우리은행(대표 황영기)과 부동산 공매업무의 e-비즈니스화에 성공한 한국자산관리공사(대표 김우석) 및 e-비즈니스 솔루션 전문업체인 (주)인터넷(대표 조병제) 등 3개 업체가 각각 수상했다.

한편 e-Biz Expo는 1996년 CALS Korea로 시작, 지난 달 10일 부터 12일까지 3일간 삼성동 COEX 3층 대서양홀에서 총 70여개 업체가 참가해 개최됐다.

e-비즈니스 시스템 & 솔루션관, e비즈니스 해외수출컨소시엄관 등 7개 테마관으로 구성된 금번 전시회는 'Toward e&u global network'라는 주제로 오프라인 기업의 e-Transformation에서 u-비즈니스에 이르기까지 실제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금년에는 e-비즈니스의 관련 국가 정책 및 사업을 소개하는 산업자원부 e-비즈니스 홍보관을 처음으로 설치,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으

며, 국내 40여개 업종의 e-Transformation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산업부문 B2B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 지원관, 물류, 식품, 공예 업종 등의 RFID를 활용한 Traceability 적용 사례를 보여주는 u-비즈니스 지향의 u-Industry 산업 적용 체험관 등의 테마관으로 구성, 비즈니스인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지식경제의 신성장엔진으로 부각되고 있는 e러닝산업의 활성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러닝 엑스포 2005(e-Learning Expo 2005)』가 지난 달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같은 장소에서 총 30여개 업체가 참가해 개최됐다.

한편 이번 '대한민국 2005 e비즈니스 주간'에는 e비즈니스 추진기관 및 기업의 폭넓은 참여 하에 관련기술 개발성과와 동향정보, 정책방향을 조망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세미나, 포럼이 개최됐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한국전자거래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7개 기관이 참여, 2005 e비즈니스 현재와 미래 세미나, 한·중·일 e비즈니스 컨퍼런스, U비즈니스 산업발전 전략 세미나, 2005 APEC e-Health 국제세미나 등 총 16개의 세미나, 포럼, 컨퍼런스 및 설명회 등을 열었다.

산업자원부
디자인코리아 2005 조직위원회 발족
 이번달 1일부터 10일까지 코엑스서 열려

산업자원부(장관 이회범)는 이번달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삼성동 COEX 대서양관에서 개최

되는 '디자인 코리아 2005'와 관련, 구자홍 LS회장(조직위원장)을 비롯한 23인의 저명인사들이 참여하는 '디자인코리아 2005' 조직위원회 회의를 지난 달 11일 무역협회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회범 산자부 장관이 직접 참석, 디자인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디자인코리아 2005'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를 비롯한 각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디자인코리아 2005' 행사는, 지난 '디자인코리아 2003'에 이어 개최되는 것으로, 특히 '세계베스트디자인전'에는 지난해에 비해 참가국도 4개국이 늘어 16개 디자인선진국에서 선정된 5백여점의 GD상품이 비교·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텐저린(英), IDEO(美) 등 세계 디자인을 선도하는 유명 디자인전문기업의 제품을 총망라해 전시할 계획이며 산업자원부는 그간 전문가회의, 실태조사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디자인산업 발전전략' 보고대회도 함께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디자인코리아 2005에서는 디자인경영 우수기업 사례를 발표하고, 제7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및 제21회 우수산업디자인(GD)상 시상이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달 2일과 3일 양일간 코엑스 그랜드 컨퍼런스룸에서는 '미래를 위한 디자인'을 주제로 국제회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세계적 기술미래학자인 존 타카라, 영국출신의 대표적인 산업디자이너 자스퍼 모리슨, 세계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ICSID) 회장인 피터 잭, 프랑스 산업디자인진흥청장 앤 마리 부탱 등 디자인 관련 학계·업계의 최고 권위자들이 참여, 창의성, 사회와 환경의 통합, 한국 디자인의 가능성과 과제 등을 토론하게

될 예정이다.

금년 '디자인코리아 2005'는 지난 '03년 행사에 비해 행사기간 및 전시장규모면에서 대폭 확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국제디자인행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자원부
2015 철강·석유화학 비전 발표
 세계 철강·석유화학산업 리더다져

철강·석유화학산업의 지속 성장 및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해 마련된 「2015 철강·석유화학산업의 비전 및 발전전략」 발표회가 정부 및 양 협회·업계 관계자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달 22일 전경련회관 경제인클럽에서 개최됐다.

산업자원부 허범도 차관보와 전경련 조건호 부회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 행사에는 철강·석유화학 업계 관계자와 대학·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석, 산·학·연 전문가와 산업자원부가 공동 수립한 “산업별 미래 비전 및 발전 전략”을 함께 나누고 보다 구체화시키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졌다.

허범도 차관보는 축사를 통해 철강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이 현재와 같이 성장하기까지 관계자들의 노고에 대해 치하했으며, 발표회 및 패널세션 참석자들은 양대 기간산업이 현재 직면해있는 문제점과 가능한 해결방안, 나아가 미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전략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펼쳤다.

아울러, 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의 세션에서는 POSCO·현대 INI Steel·동국제강, SK·삼성토탈·LG화학·호남석유화학 등 각 업계 관계자들간에 최근 철강·석유화학산업의 국내외 동향 및 향후 발전전략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그동안 철강·석유화학산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70년대 초 정부의 중화학공업육성 정책에 의해 시작된 이래, 철강은 자동차·조선·전기전자·기계 및 건설산업의, 석유화학은 자동차·섬유·건설산업으로부터 나아가 반도체·전자 등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여러 수요산업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 왔으며, 1차·2차 석유파동과 90년대 불황기의 구조조정 등 대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현재 세계 5위라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양 산업 모두 대외적 위협요인이 야기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세계 메이저 기업들이 대규모 인수·합병의 방식으로 몸집을 불려 시장과 기술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원유와 원료가격이 폭등해 해외원료 확보·대체원료 개발 등 원료의 안정적 조달의 문제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또한 중국·중동·인도 등 후발개도국이 물량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질적 경쟁력에 있어서도 무서운 속도로 추격해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발표회 참가자들은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작성된 발전전략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고 향후 추진 과정중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다짐했다. 특히 우리 산업이 그동안 축적한 잠재역량을 적극 활용해 미래의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도전 과제들에 슬기롭게 대응, 2015년 세계 철강·석유화학산업을 리드하는 초일류 산업을 구현하겠다는 비전을 기본 목표로, 양 산업 모두 생산규모는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만큼 양적 성장 측면에서는 현재의 규모(세계 5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되, 기술(원천기술 및 환경친화형 기술 개발) 및 원가경쟁력 확보(해외 원료 및 국내 대체원료 개발, 생산 효율화) 등 질적 측면의 고도화를 이룩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일류·선진 산업으로 거듭나야겠다고 다짐했다.

농림부
생산단계서 기생충 검사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관리

중국산 김치에 이어 국산 김치에서도 기생충 알이 검출된 것과 관련, 정부는 앞으로 생산 단계에서 기생충 검사를 실시하고 기생충 예방을 위한 표준 영농 매뉴얼을 작성해 농가에 보급하기로 했다.

농림부(장관 박홍수)는 '김치 기생충 알 검출 관련 대책'을 통해 "현재 생산 단계에서 안전성 제고를 위해 조사하고 있는 잔류농약 검사와 병행해 기생충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실태조사팀을 구성해 배추, 무 등의 재배지 토양과 수질, 영농자재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김치 제조업체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김장용 무·배추 주산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본격 도입하기로 한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배추, 인삼 등에 우선 시행하고 생산이력제도 병행해 실시하기로 했다.

GAP는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 수확 후 포장 단계까지 농약, 중금속, 유해생물의 위해(危害) 요소를 관리하는 체제다.

또 기생충 알 검출 업체에 대해서 수출물류비 지원을 중단하고 업체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에 기생충을 추가, 안전이 확보된 제품에 한해서만 물류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김치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인증제도를 확대 지원해 수출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농림부는 오는 7일 보건복지부와 농업진흥청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소비자·생산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농림부
2005 서울국제식품전시회 개최
 '신선편이식품 유통현황과 과제' 세미나

농림부(장관 박홍수)가 주최하고 aT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주관하는 2005 서울국제식품전시회가 지난 달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서울국제식품전시회는 국내 농업의 내수기반 구축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1991년 실시된 "제2녹색시대"를 2000년에 국제화해 국제식품 전시회로 발전시

정책기관

켜 왔다.

올해에는 EU관(15개업체), 중국관(39), 일본관(24) 등 해외국가관 유치에 성공,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태국, 멕시코 등 20개국 90개 우수식품업체를 유치했다. 또한 총2백57업체, 2천여품목이 전시·판매되고 가공식품의 품질, 포장디자인 등을 국내업체간 뿐만 아니라 외국업체와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정보교환의 장이 됐다.

올해 전시회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참가업체의 신규관로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국내 및 일본, 중국, 대만, 미국, 독일, 러시아 등 우리 농식품 주 수출대상국 14개국 우수 바이어를 초청, 국내 수출업체의 사전신청을 받아 실시한 '바이어 수출 상담회'를 통해 국내 수출희망 업체들에

게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아울러 일본, 중국, 싱가포르 해외 바이어와 국내 수출업체가 인터넷을 활용해 상담하는 '사이버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해외시장 개척에 새로운 마케팅 기법을 도입했다.

행사장은 신선농산물, 김치, 인삼 등 9개 부류로 구분,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토록 전시장을 비치해 1전시장은 내수 기반 조성을 위한 전시·판매 행사장으로 지자체 우수상품관, 신기술, 신제품관, 농협관, 특수단지관 등으로 구성했으며, 특히 "신기술·신제품관"에는 농진청, 한국식품연구원, CJ, 웅진식품, 동원F&B 등에서 선보인 국내 식품관련 신기술·신제품이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해외 및 국내 바이어에게 홍보해 큰 관심을 끌었다.



▲ 농림부가 주최한 2005 서울국제식품전시회

2전시장은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을 위한 거래 앞선의 장으로 수출업체관, 해외업체관, 수출정보관, 공동대표브랜드 홍보관, 식문화 체험관 등으로 구성, 국내의 수출식품 우수성 및 다양성을 부류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유럽관, 중국관, 일본관으로 구성되는 해외업체관에는 과일, 와인, 파스타, 초콜릿, 올리브유, 육류, 커피, 조미료, 홍차, 수산가공품 등의 다양한 식품과 포장·마케팅 기법 등에서 선진기술을 가지고 있는 해외 유명업체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우리 식품과의 비교경쟁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조해영 aT 아태마케팅팀장은 “선진기술을 갖고 있는 해외유명 업체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우리식품과의 비교 경쟁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며 “우리 식품산업의 향후 진출방향을 제시하

는 한마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회에서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렸는데,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이 주관한 ‘신선편이식품 유통현황과 과제’ 세미나가 지난 달 3일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식품연구원 김동만 책임연구원의 주제발표로 진행됐으며, 농림부 식품산업과 최대휴 과장, 농협중앙회 송택호 부부장, 대관령원현 광기성 전무, 덕성여대 김건희 교수, APEC 물류전략연구소 김홍태 고문, 하나로 USA 이상오 대표 등이 토론에 참가했다. 김동만 책임연구원은 신선편이식품이 활성화 되길 위해선 ▲ 신선편이식품에 대한 지원, 육성, 관리제도 구축 ▲ 품질, 위생기준, 설비, 공정기준 등의 용어 정립 ▲ 품질관리기술 도입 및 활용 ▲ 위생, 안정성, 친환경에 대한 고품질화 ▲ 산



▲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이 주관한 신유통토론회

정책기관

지형, 소비지형,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비를 위한 경쟁력 제고 ▲ 소비자 홍보 및 정보 제공 ▲ 전문분야별 업체 협의회와 연구회 구성 및 활동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RFID 한글용어 무선인식으로 통일
 RFID 용어 등 12종 국가표준 제정

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원장 김혜원)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RFID 기술의 표준화 니즈를 반영, 'RFID 한글용어'를 '무선인식'으로 채택하는 등 RFID관련 국가표준(KS) 12종을 지난 달 10일 제정했다. 12종은 '용어 2종', '리더-태그간 무선프로토콜 6종', '데이터 규약 3종'등이며(제정내용 별첨), ISO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도입한 것이다.

그간 산업계에서 '무선인식, 무선주파수인식, 무선식별,전파식별'등으로 불려 왔던 'RFID' 우리말 용어가 KS에서 '무선인식'으로 선정돼 RFID 용어 통일이 기대되고 있다.

'RFID' 용어는 '무선인식, 전파식별, 무선식별'등이 검토됐으나, KS전문위원회(2회) 및 산학연 전문가간담회(1회)를 개최, 의견수렴결과, '무선인식'이 최종 채택됐다. 이는 '무선'이 '전파'보다는 유통물류,제조,서비스등 일반산업분야에 친근감있게 활용하기 좋고, '인식'은 '자동인식'등 관련 산업분야에서 이미 사용되는 용어로 혼선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선정된 것으로 'RF Tag' 한글용어는 '무선인식태그 또는 전자

태그'로 채택됐다. ISO 국제표준에서도 'RF Tag'는 전자라벨 등 다양한 용어를 허용하고 있어,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자태그'란 용어가 추가된 것이다.

RFID 용어의 KS 제정으로, 논문, 특허, 기사 등 정보자료에 표준용어가 사용되면, 정보표현 및 검색 등 지식정보 관리와 전문가간 정보교환이 혼선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RFID 12종 국가표준에는 RFID용으로 출력제한 등 선진국에 비해 전파규제가 엄격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국내의 '135kHz, 13.56MHz, 2.45GHz 대역'의 기술기준 관련 3종 표준도 포함되어 있어, 이에 근거해서 3개대역에 대한 국내전파기술기준의 규제완화 검토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기술표준원은 RFID의 국가적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ISO(국제표준화기구)의 상품, 동물, 차량, 물품 등의 RFID 국제표준화와 연계해 '08년까지 RFID관련 국가표준 60여종을 정비하고 우리산업계에 실시간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환경자원공사
「2004 폐기물감량 현황 통계」발간
 대상사업장 전년도대비 감량실적 향상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 이치범)는 기업에 폐기물 감량 추진 지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장폐기물다량발생사업장의 폐기물감량현황』 통계를 발간했다. 전년도에는 지정폐기물 다량발생 사업장(2백톤/년)만 조사 대상이었으나, 이번 통계조사는 일반폐기물 다량발생 사업장(1천톤/년)까지

범위를 확대해 실시했다.

통계 결과에 따르면, 제품 1톤을 생산하는데 발생된 폐기물량은 42.7kg으로 전년대비 15.5%(7.7kg/톤) 감소하였고, 매출액 10억 원당 발생된 폐기물량은 62.6톤으로 전년대비 4.7%(3.1톤/10억원)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발생된 폐기물중 85.1%가 재활용돼 전년(85.6%)과 비슷한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재활용량은 23%증가(15,677천톤→20,317천톤)했다.

업종별 감량실적을 살펴보면 제1차 금속산업(전체업체수의 19%) 업종이 전체 발생량의 68%를 차지하는 반면, 섬유제품제조업 등 9개 업종(전체업체수의 43%)은 폐기물발생 점유율 3% 미만인 것으로 드러나 큰 격차를 보였다.

재활용률은 제1차 금속산업이 95.1%,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이 90.8%, 전자제품제조업이 79.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섬유제품제조업이 20.2%, 석유정제품제조업 34.3%, 조립금속제품제조업이 51.6%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매출액이 큰 대기업일수록 높은 폐기물발생량 못지않게 재활용실적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폐기물감량에 대한 인식전환 및 기술 및 자금제공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환경자원공사는 폐기물 사전 발생 예방에 중점을 두고 감량화 정책 기반 조성 및 사업장 환경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며, 현재 감량화종합정보 홈페이지(www.wastezero.or.kr)를 통해 사이버컨설팅, 국내외 폐기물감량 기술 및 기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감량화 추진 사업장에는 시설자금 융자지원, 폐기물감량 부진 사업장은 기술진단·지도와 함께 업종별 감량가이드 개발·보급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식약청

HACCP 기술지원 전담 센터 운영

전용 홈페이지 열어, 정보교류 원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은 중·소규모 영업자들이 보다 쉽게 HACCP 제도를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HACCP과 관련된 모든 정보 및 기술을 제공하는 「HACCP 기술지원센터」를 지난 달 11일 개소했다.

소비자단체, 식품산업단체 및 협회, 연구기관, HACCP 적용업소 관계자 등 약 1백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HACCP 제도의 국제추세 및 향후전망, HACCP 적용업소 도입사례, 중·소규모 업체의 효율적인 HACCP 적용방안 등에 대한 기술세미나도 함께 개최됐다.

이 센터는 식품안전기반 조성을 위해 2006년부터 어묵류 등 6개 식품에 대한 HACCP의 단계적 의무적용을 추진함에 있어 HACCP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방문, HACCP에 관련된 필요한 자료를 얻고, 각종 위해정보 등을 검색하며 확인할 수 있고 기술상담서비스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소하게 됐다.

특히 매주 목요일에는 업계 현장에서 발생된 문제점 등을 주제로 기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으로 산·학·연 관계자들이 상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場)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방문자들의 편리를 위해 인터넷에서도 HACCP 관련 각종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이 센터 전용 홈페이지(www.haccpcenter.or.kr)를 갖추고 있다.